생활구원 없이 영생구원 없다

(이사야 12:1~6)

1.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2.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4.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5.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6.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생활구원 없이 영생구원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생활구원 없이 영생구원 없다'

단언컨대 여러분의 일상생활 중에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또한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제까지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선민들의 문제를 제기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음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민들은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성전 뜰을 밟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선민들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더라도 극히 적은 수만 남은 자 혹은 피난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지라도 생활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영생구원은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활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인지 알아야 경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의 내용은 곧 우리 마음의 대상과 관계함입니다. 예를 들어 제일 흔한 대상으로써 돈이 있습니다. 마음이 돈과 관계할 때에 몸도 따라서 움직입니다. 즉 몸의 움직임은 마음이 돈과 관계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열매들입니다.

이렇듯 생활이란 육신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을 마음으로 관계함입니다. 생활구원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마음구원과 마음이 관계하는 대상의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에 생활구원은 완전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돈이 삶이자 생활의 내용입니다. 돈이라는 대상에 마음이 관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돈을 버는 것이 구원이 된다고 여깁니다. 돈이 문제였기에 돈이 생기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활구원에 대해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돈 문제는 돈 문제대로 각각 구원을 얻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진정한 생활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장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1~12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13장부터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특히 12장의 뒷부분들은 임마누엘을 일관적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앞부분에서도 맥락상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의 주제가 관통하는 1~12장까지의 내용을 마무리 지으며 생활구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을 보면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경고된 심판과 멸망이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벌써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구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선민들은 모래알처럼 많지만 이중에서 생활구원을 받은 자라야 정말로 하나님께 가는 참 선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그 날에'라는 말은 앞서 1장 4절에서 나온 심판의 날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 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또한 하반부에서 이어져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로 돌아와서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선민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는 악행을 그쳤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고 멀리하는 일은 선민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이고 악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선민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으며 업신여겨 멀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선민은 이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올바른 방법으로 응답하는 자들입니다. 그 결

과가 2절에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가 생활구원의 내용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라는 말은 곧 마음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삶의 문제들에 구원이 임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두 가지 구원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임마누엘은 기독교의 전부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음진리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렇게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임마누엘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생활은 알차고 진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 영생구원의 확증이 되는 생활구원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발생하게 된 상황이 어땠습니까?
북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동맹군을 이루어서 예루살렘까지 침공해왔습니다. 북 이스라엘 베가 왕은 북쪽으로부터 침공했고, 아람의 르신 왕은 요단강 동쪽으로부터 파죽지세로 진격해오며 국토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이사야는 떨고 있는 아하스 왕과 유다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의 예언을 전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선민들이 하나님을 실로아의 냇물처럼 사소하게 여기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반대로 베가 왕과 르신 왕을 급물살처럼 여겼습니다. 이에 이사야는 이보다 더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인 앗수르가 임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뜻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남 유다가 처해있는 상황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베가 왕과 르신 왕이 쳐들어왔다는 사실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 중에 누구를 더 신뢰하는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베가 왕과 르신 왕이 쳐들어 왔다는 사실 중에 어느 것을 마음에서 더 크게 체감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베가 왕과 르신 왕의 동맹군이 아무리 위협적일지라도 이것은 선민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운명과 생명과 성공과 실패를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론대로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선민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편 하나님을 선택했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동맹군이 침공했을 때에 침공의 사실보다 하나님을 체감

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금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식을 하자니 육체적으로는 아무 힘도 없어서 전쟁은커녕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에 야하시엘 선지자는 이사야가 했던 예언과 똑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지, 실제로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있다는 사실 중에서 하나님을 더 우선적인 사실로써 실감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증거로써 전쟁에 나아갈 때에 성가대를 앞세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군대는 적군들과 싸우기 위한 자들입니다. 한편 성가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민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바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성가대를 군대 앞에 앞세웠다는 것은 적들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체감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선시해서 체감하는 것이 바로 마음구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우선하여 체감하면 당연히 적군이 쳐들어오는 상황은 마음에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버려진 문제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갑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위기상황도 나의 선택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의 구원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앗수르 왕 산헤립이 침공했을 때에 온 나라가 겁에 질렸습니다. 산헤립 왕의 거대한 군대를 체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산헤립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까지 보내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두려워 떨면서도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에 그룹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룹은 곧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 위에 있었던 천사의 형상이었습니다. 속죄소가 의미하는 것은 죄의 발생과 속죄함입니다. 법궤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상징하는 말씀의 돌판도 들어있었습니다. '말씀의 돌판'은 곧 인격적으로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실감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앗수르의 산헤립 왕을 먼저 마음에 받아들였음을 깨닫고 회개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번제단에서 상번제로 드려지는 어린양과 함께 죽였던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은 곧 산헤립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궁궐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굳이 '성전에 와서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바로 마음구원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산헤립을 우선시했던 마음을 번제단에서 죽이고 하나님을 우선시하여 체감하기 위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단순히 산헤립 왕을 물리쳐달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체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산헤립이 욕되게 하고 있음을 분하게 여긴 것입니다. 자신들의 승

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승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우선시하여 체감하자 그 결과로 앗수르의 십팔만 오천 명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멸절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에 묶인 마음이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문제보다 더 크게 체감하는 마음의 구원입니다. 내 마음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하나님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를 우선시한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도 구원받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문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감한다면 마음에서 버림받은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에 문제도 구원받게 됩니다. 나의 뜻과 지혜와 능력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크신 지혜와 능력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활구원은 마음이 구원받고, 문제가 하나님 손으로 넘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본문 4~5절을 보면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붙잡았던 문제가 하나님 손에 넘어갈 때에 이루어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앞서 보았던 3절의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라는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봅니다.
인생에서 만나고 일상에서 끝없이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상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긷는 생활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돈 문제를 예로 들어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돈이 없거나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상태입니다. 없어서 갈증이 생겼든 더 가지고 싶어서 갈증이 생겼든 돈에 대한 갈증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증을 일으키는 돈 문제에서 해결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상식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선민들의 상식은 달라야 합니다. 돈 문제로 괴로워하던 선민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돈 문제와 하나님 중에서 어느 편을 더 크게 실감할 것인지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선민의 특권입니다.
선민이 아닌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채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주어질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민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선택을 제시하십니다.

돈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돈과 하나님 중에서 무엇을 더 크게 실감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이미 돈 문제에 붙잡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먼저 실감하고 있다고 대답하고 싶어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돈 문제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풀려날 수가 없기에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돈 문제에 먹혀서 돈을 더 크게 실감하고 있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더 우선이 되셔야 함을 아는 이론적 믿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론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이론이 실제가 되게 하는 장치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마음을 죽이면, 마음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돈보다 먼저 더 크게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활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서 버려진 돈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나의 마음도 구원을 받고 돈 문제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임마누엘 단어가 가지는 상황(context)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군의 동맹군과 하나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고 묻는 장면에서 임마누엘이 등장했습니다. 선민들에게 있어서 돈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든 없든 돈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더 크고 강력한 것으로 여겨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크게 체감하고 있는 한 돈 문제는 실제로 돈이 있든 없든 계속되어집니다. 끝날 날이 없습니다.
건강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민에게 있어서 건강문제란 건강이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 건강문제를 하나님보다도 우선시하고 더 크게 실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응하는 해결사로 밖에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구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민들에게 있어서 건강문제는 병이 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병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건강문제를 체감하면 평생이 지나도 이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암에 걸렸습니다. 이때에 선민들이 문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암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더 크게 체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암으로 죽게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죽는 이유는 암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죽을 때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암을 동원하셨을 뿐입니다.
사고가 나서 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을 때를 정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통해 성취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죽을 때가 아니라면 설령 불구덩이에 넣어도 죽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죽을 때가 임한다면 안방에서 편히 자다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취직이든 결혼이든 승진이든 생활이든 취미까지도 이것들이 자체로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마음에 붙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 3절의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라는 말씀과 같은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이 우물입니다. 임마누엘은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모든 대상들에게 앞서서 기억되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물들'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사로잡히고 체감하는 문제들보다도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을 체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일을 우선시하여 체감하는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로 갈 때에 말씀대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긷게 됩니다. 문제해결과 무관하게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 마음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떠난 세상 문제는 나의 집착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의 작은 지혜와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넘어가게 되었으니 이것이 생활구원의 다른 한 가지 요소가 되는 마음이 관계하는 대상들의 구원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당면해있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세상의 문제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신 분으로써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더 크게 체감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생활 속에서 제대로 작동되면 반드시 생활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은 이 세상의 문제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떠난 문제들은 나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뜻으로 넘어감으로써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손으로 넘어간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언컨대 마음구원이 유지되는 중이라면 그것조차도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세상적으로는 좋지 않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면 일어나야만 합니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고 나와 관계를 맺은 가족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좋은 일임을 안다면 감사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활구원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올바르게 응답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루

어진 생활구원은 영생구원의 확증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더 크게 체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마음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마음 떠난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넘겨져 구원받게 됨으로써 영생구원까지 앞당겨 누리는 기쁨 위의 기쁨, 은총 위의 은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